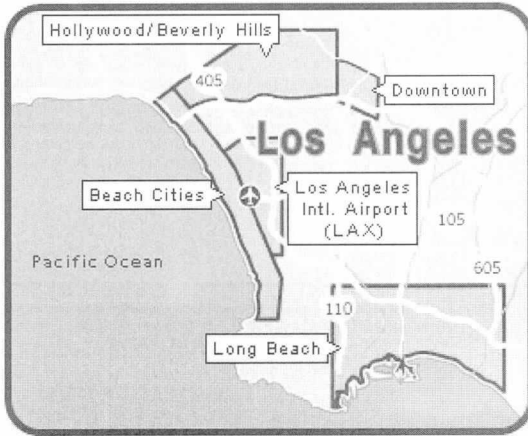


북미항로 취항선사 내년에 운임 15% 인상키로

TSA, 연료유, 내륙운임 상승 등 원가급등으로



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(TSA) 회원사들은 내년에 있을 운임협상에서 운임을 15% 인상하기로 했다.

이에 따라 TSA는 내년 운임협상에서 아시아-미 서안 항로 운임은 FEU당 300달러, 내륙운임은 650달러, 미 동안까지 이어지는 올 워터서비스는 500달러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이같은 결정은 금년들어 연료유가와 내륙운임의 상승, 그리고 선박투자비용의 상승 등으로 원가가 급등,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TSA는 비용보전계획(cost-recovery program)을 발표한 바 있다.

특히, 선사들은 내륙운임의 경우 1990년대 10년 장기계약을 Union Pacific, BNSF 등 주요 철도회사들과 체결한 바 있는데, - 이 계약 당시 시장상황과 현재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, 현재는 25~35%의 운임이

상승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.

이와 함께 선사들은 트럭운전수의 부족과 연료유가 상승으로 트럭킹 비용도 상승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.

한편, 화주들은 이 같은 결정이 선박의 수급에 따른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. 이들은 지난해에도 미 서안의 항만적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형선이 투입됨으로써 선사들의 단위당 원가가 그만큼 절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.

하지만, 선사들의 경우 수송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단위 수송량에 대한 수입은 줄어 실질적으로 재무상태는 악화되는 상황이다. 더구나, 유가와 내륙수송비용 상승 등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북미발 아시아항 물동량 증가세의 지속적인 둔화 등으로 운임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.

